

# 같이 가야 멀리 간다?



**김희석**  
칼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의 자산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때 기록한 숫자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 그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기원전 2333년 10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매일 9억4000만 원씩. 그래야 겨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스페이스X 상징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보유 지분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다.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부를 처음 마주하고 있다.

마침 전 세계는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축구는 스타 한 명이 승리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골은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승리는 열한 명이 함께 만든다. 미드필더의 패스와 수비수의 헌신, 골키퍼의 선방, 감독의 전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훈련이 함

게 만들어 낸 결과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적인 기업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뛰어난 기업가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열며, 우리의 삶을 바꾼다.

스페이스X의 성공 역시 머스크 혼자 만든 결과의 아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진의 도전, 실패를 견뎌 낸 조직,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 정부의 발주와 우주산업 생태계,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다. 그 결과 기업의 가치는 크게 높아졌고, 최대주인 머스크의 자산 가치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 이르렀다.

성공은 문제될 것이 없다. 혁신은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질문은 성공 이후에 시작된다. 그 성공은 사회를 얼마나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기술은 인류를 더 멀리 데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 낸 부 역시 모두를 함께 앞으로 이끌고 있는가? 스페이스X는 인류를 우주라는 더 먼 세계로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기업은 우리에게 지구 위의 질문 하나를 남긴다. 우리는 정말 함께 더 멀리 가고 있는가?

오늘날 양극화는 더 이상 낮은 단어가 아니다. 자산은 자산을 낳고, 기술은 더 큰 기술을 낳는다.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미래

를 향한 사람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풍요는 커졌지만 그 풍요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온도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리미타리아니즘(Limitarianism)'이라는 철학적인어도 등장했다.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에도 일정한 사회적 한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부의 집중이 인류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같이 가야 멀리 간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속담을 다시 읽게 된다. 혼자서 더 빨리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함께 더 멀리 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페이스X는 오늘도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인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 기준은 우주를 얼마나 멀리 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는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전진하는 사회다. '같이 가야 멀리 간다'는 오래된 말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

/vbkim11@metroseoul.co.kr

# 해외정책에 울고 웃는 K-배터리의 현실



**김수첩**  
원관희 (산업부)

K-배터리는 언제까지 해외 정책만 바라봐야 할까. 미국의 법안 하나에 입학 전망이 바뀌고 유럽의 규제 변화에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불황기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도록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그동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맞춰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넓혀왔지만 현재는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의 공급 확대가 겹치며 수익성 압박과 투자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업황이 꺾인 상황에서도 미래 생산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세액공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업황 부진으로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당장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공제액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을 보강하는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배터리 생산 단계의 현금흐름을 보강하고 있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제조 투자에 현금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국내 지원 체계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배터리 산업은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 규모도 크다. 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일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국내 배터리 생태계가 축적해 온 기술과 인력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기본 장치다. 경쟁국들이 세제와 금융, 인프라 지원을 묶어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동안 국내 지원 체계는 여전히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K-배터리 지원책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자 초기에는 투자 부담을 낮추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 실적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업황 부진기에도 기업의 투자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해외 정책 변화가 만든 일시적 기회를 국내 기업의 투자 지속성으로 연결하려면 세제와 금융, 수요 창출을 묶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wkh@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5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0년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72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84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49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61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겠습니다. **73년생** 하루종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85년생** 바라는 것은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50년생**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환합니다. **62년생** 기다리던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74년생** 작은 근심을 버리면 길합니다. **86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1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3년생** 너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87년생** 지금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반성하지 마세요.



**52년생** 기다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64년생** 학업운이 매우 좋습니다. **76년생** 사업을 하시는 분이려면 매우 좋습니다. **8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3년생**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65년생**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77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마막혀 있습니다. **89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지 못합니다.



**54년생** 새로운 일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66년생** 거 배우자와 충돌의 기미가 보이니 먼저 양보하세요. **78년생**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90년생**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세요.



**55년생** 속마음을 상대에게 시원히 얘기하세요. **67년생** 인생무상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하루입니다. **79년생** 닭띠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91년생** 설부터 움직이지 말고 기회를 보세요.



**56년생** 몸과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면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68년생** 집중하고 노력하면 길합니다. **80년생** 몸가짐을 잘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92년생**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57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69년생** 어려운일이 생기면 주위 조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81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초행길을 갈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항상 자신에 유의하세요. **70년생** 보람이 있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82년생** 대범하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4년생** 뭇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하세요.



**59년생**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1년생**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83년생** 여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95년생**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 김상회의四季 놀아도 절마당에서

“놀아도 절마당에서 놀아라.”라고 하듯 불자라면 초하루와 보름은 되도록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신자의 기본의 무이자 도리로 알고 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법회와 예불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찰마다 모시고 있는 불보살님에 따라 약사재 일이나 관음재일 또는 지장 재일 등의 명칭 아래 기도한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산자락마다 절이나 암자가 위치하여 있고 함준한 산이라 할지라도 절이 들어선 곳은 풍광이 수려한 데다가 물소리 바람 소리까지 어우러져 감탄을 금치 못한다.

또 하나 천년 고찰의 경우에 사찰이 건립되거나 암자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한결같이 원효대사, 자장율사, 의상대사 등 삼국시대로부터 이름난 고승이나 선사들이 세웠거나 수행을 한 터가 대부분으로 영험한 일들이 함께 서려 있는 장소들이다. 큰 사찰일수록 일주문에 사천왕상을 통해서 절 마당에 들어가게 된다. 사천왕들은 외양부터가 무시무시하다. 특 불겨진 눈에 짐승의 이빨 모습인데 얼굴은 잔뜩 화가 난 형상처럼 보인다. 그래서 절 문을 넘기를 겁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사천왕들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호법신들로서 악하고 해로운 기운들을 막아주며 불법을 수호하는 선 신이다. 수행에 마음을 둔 출가자들과 재가불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호자이다. 팔자는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근처에 있는 월광사가 지역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새롭게 불사 원력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의 원력까지 더해져 시작이 반이라고 믿고 있기에 힘닿는 호법신들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청정하게 발원을 드려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